

제주 사회교육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

김 민 호

〈 目 次 〉

- I. 머리말
 - II. 대학의 사회교육 참여의 의의
 - A. 대학 기능 활성화
 - B. 사회교육의 발전
 - III. 대학의 사회교육 참여의 역사
 - A. 영국의 사례
 - B. 한국의 사례
 - IV. 제주 사회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의 과제
 - A. 대학인의 개별적인 사회교육 참여
 - B. 대학 주관하의 체계적인 사회교육 실시
 - V. 맺음말
- ※ 참고문헌

I. 머 리 말

오늘날 한국 사회는 가히 轉換期라 할 만큼,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외교는 물론이고 교육 부문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영역이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규범과 가치 및 제도 등을 만드는 데 많은 진통을 겪고 있다. 위로부터 통제하던 관습과, 밑으로부터 자생하려는 욕구가 함께 뒤엉킨 혼란기이다. 서구사회가 오랜 준비간을 거쳐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정을 겪었음에 비해, 우리는 단시간내에 이를 경험해야 하기에 그 어려움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교육계의 문제만 보더라도 최근 '교육 민주화'의 기치 아래 결성된 교직원 노조 합법화 문제나 대학 운영의 합리화와 민주화 등을 둘러싼 여러 집단간의 첨예한 갈등이 이를 잘 보여준다.

한편, 이상철(1987)에 의하면 제주사회의 경우는 육지와는 달리 島嶼性 때문에 전환기적인 한국사회의 일반적 성격을 배경으로 한국사회내에 종속이라는 주변사회적 특수성을 드러낸다. 경제적인 면에서, 자율적인 재생산 구조를 유지하지 못한 채 한국 자본주의 재생산 구조에 통합되고 있다. 지역경제의 성장과 주민의 소득증대라는 성과가 있으나 다른 한편 관광위주의 개발로 인한 지역경제의 비자립성, 개발이익의 유출, 육지부 자본의 제주토지 잠식, 환경훼손

* 1989년도 지역발전을 위한 학술세미나 주제발표 논문임.

등의 문제가 남아 있다. 사회·문화적인 면에서는 개방화와 생활편익 증대 및 교육수준의 향상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측면 또한 적지 않다. ① 상업적 소비문화의 증대와 주민들의 가치관 혼란, 생활양식의 왜곡, 청소년 탈선의 증가, ② 문화변용에 의한 민속문화의 특수성 상실, ③ 관광개발에 따른 전통문화의 박제화와 지역주민의 심리적 갈등, ④ '관광입도'의 홍보속에 주민들의 비주체적인 상품화된 삶의 강요, ⑤ 개발과정에서 주민참여 배제에 따른 소외의식, 피해의식, 상대적 박탈감과 갈등, 그리고 분리주의적 태도의 조장, ⑥ 전통적 마을 공동체의 급속한 와해 등이 그러하다. 전환기적 특성의 한국사회, 한국사회의 주변사회로의 종속성을 엿보이는 제주사회에서 대학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대학 자체가 내적으로 많은 시련들을 겪고 있기에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노력이 허튼 것으로 보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대학 내부의 문제도 바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위의 질문은 대학인에게 있어 결코 소홀히 넘길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연구자는 교육학도의 한 사람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갖춘 인간 형성'에서 그 해결책을 구하고자 한다(정호경, 1986; 이영덕, 1986; 한준상, 1988; 김안중, 1988). 그리고 '대학의 사회교육 참여'를 그 한가지 실현방안으로 생각해 본다. 물론 교육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모든 사회문제를 교육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한 사회의 문제는 그것을 야기시킨 역사적 맥락 안에서 구조화된 것이기에, 사회구조의 개혁을 위한 노력과 교육적 노력이 병행해야 해결이 가능하다(김신일, 1988). 또한 교육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만 한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자칫 '교육적 전체주의'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김신일, 1983).

특별히, '대학의 사회교육 참여'가 '공동체 의식을 갖춘 인간형성'의 한가지 방안으로 제안될 수 있는 까닭은 ① 대학이 '도덕적 탁월성'을 가졌다고 기대하기 때문이며¹⁾, ② 대학이 갖는 사회 교육적 잠재력- 지식의 전달, 연구, 적용에 관계된 인적, 물적 자원-이 그 어떤 사회교육 기관이나 단체보다 풍부하기 때문이다(김도수, 1988).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대학이 본래의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기에도 부족한 점들이 많은데 굳이 사회교육적 역할까지 떠맡아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질런지 모른다. 또는 이제까지의 대학의 사회교육 참여는 '공동체 의식을 갖춘 인간형성'에 기여하지 못했는가라고 반문할런지 모른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사회교육 참여의 의의와 이제까지의 활동을 검토하고 특별히 '공동체 의식을 갖춘 인간형성'을 위해 제주에 있는 대학들이 앞으로 수행해야 할 사회교육적 과제는 무엇인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1) 이 점은 종교단체의 사회교육 활동에서도 기대할 수 있겠다. 실제 역사 속에서도 종교와 대학의 역할이 부각된 바 있다(Ⅲ장 참조).

II. 대학의 사회교육 참여의 의의

대학이 사회교육에 참여하는 모습은 '사회교육'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사회교육에 대한 개념 정의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 등과 더불어 '사회교육'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나 영어 사용권 국가에서는 성인교육(adult education)이라는 용어가 우리의 사회교육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그 곳에서의 사회교육(social education)은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사회생활교육 또는 사회성 훈련 등 사회생활과 교육(social studies)을 가리킨다. 또한, 성인교육이란 영국에서는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고등교육 수준의 비직업적 일반 교양교육을 뜻하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일반 교양교육은 물론 직업교육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진원중, 1974; 황종진, 1980; Coles, 1977 참조).

우리나라 학자들간에도 사회교육에 대한 개념정의가 다소 상이하다. 진원중(1977)은 교육의 의도성, 형식성, 조직성의 정도에 따라 넓은 의미의 사회교육과 좁은 의미의 사회교육으로 구분한다. 넓은 의미의 사회교육은 "학교이외의 모든 청소년과 성인을, 모든 지역의, 모든 시설에서, 모든 조직·단체와 그 일꾼들에 의하여, 모든 기회에, 인생만반사를, 어떤 목적 밑에 모든 방법을 통해서,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일"로서 "사회의 교육화"를 꾀하는 것이다. 반면에 좁은 의미의 사회교육은 사회교육법 또는 이에 준하는 어떤 규제 밑에서의 비교적 의도적·형식적·조직적인 교육을 가리킨다. 한편, 사회교육이란 당연히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임을 전제하고 대상자의 범위에 따라 청소년 및 성인의 학교의 교육은 물론 학령전 아동의 교육까지도 포함시키려는 입장(김승한, 1981; 우리나라의 사회교육법, 1982)과 학령전 교육을 제외시키는 입장(이상주, 1980; 황종진, 1980; 인도 정부와 일본의 사회교육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진원중(1977)이 소개한 분류방식을 따르고자 한다. 즉, 대학이 사회교육에 참여한다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사회의 교육화"를 위해 "대학이 정규 대학생이외의 모든 청소년, 성인, 모든 지역의, 모든 시설에서, 대학인 또는 대학의 조직이, 모든 기회에, 인생만반사, 어떤 목적 밑에, 모든 방법을 통하여,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며 좁은 의미에서 본다면 "사회교육법의 규제 밑에서 대학인이 개별적으로 또는 대학의 주관하에 비교적 의도적, 형식적, 조직적으로 수행 사회교육"을 가리킨다. 다만 여기에서는 좁은 의미의 사회교육에 국한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대학이 사회교육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의의가 있는가? 대학의 본질적 기능에 비추어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는가 아니면 단지 사회교육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적 기능일 따름인가, 또한, 대학의 사회교육 참여는 사회교육 현실에 어떤 점에서 기여한다고 볼 수 있는가 등의 질문에 답해 보자.

A. 대학기능의 활성화

대학은 그 시대의 지적 수준과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그 기능을 달리하면서 몇 차례의 전환을 거쳐 발전해 왔다. 귀족사회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전통적 지식의 계승에 가치를 부여했던 고대 대학에서 출발하여, 중세 후기 시민계급의 발흥과 더불어 새로운 지식의 생산을 목적으로 시민사회에 그 문호를 개방한 중세 대학을 거쳐, 절대 왕정기에 세워져 19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지식의 전달이나 사회봉사보다는 진리 탐구와 대학의 자유 그 자체의 상아탑적 전통을 중요시한 독일형의 대학, 기숙사 제도의 전통 속에서 연구나 사회봉사보다는 교양교육을 강조한 영국형의 대학 및 교육에 사회봉사 기능을 더하기 위해 실용적 연구의 책임을 부과하기 시작한 미국형의 대학²⁾ 등으로 분화·발전해 왔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국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대학들이 산업기술의 발전에 따른 직업 기술인 양성과 사회 민주화에 따른 교육기회 확대의 추진으로 엘리트 중심체제에서 대중 교육체제³⁾로 개방하기 시작하여 교수와 연구 및 사회봉사의 기능을 통합하여 왔다(Perkins, 1970; 한기연, 1978; 이규환, 1988; 이돈희, 1988 등 참조).

이제 현대의 대학은 교육·연구 및 사회봉사 기능중 어느 하나를 빼고는 그 사명을 완수했다고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현대 대학의 이 세 가지 기능의 유기적 통합성은 지식의 역동성에 근거한다. 즉, 지식은 획득·전달·응용의 상호작용 또는 긴장 관계속에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⁴⁾, 지식을 획득하는 연구기능·획득한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기능 및 그 지식을 응용하는 사회봉사 기능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Perkins, 1970; 12~24). 정지웅(1987)도 이 세 가지 기능의 관계를 <괴리형>, <불균형 관계형>, <균형 관계형> 및 <종합 기능형> 등으로 유형화하며 유기적 통합을 강조한다. <괴리형>은 세 기능이 서로 관련없이 수행되는 형태이다. 교수들이 자기가 전공하는 교과를 가르치지 못하고 사회봉사 활동을 별로 하지 않을 때이다. <불균형 관계형>은 세 기능중 둘만이 관련될 뿐 다른 하나와는 무관한

2) <미시간>주가 농업대학 창설을 위해 연방의회에 공유지 불하를 청원한 데서 시작하여 마침내 1862년 <모릴 토지대여법안>이 공포됨으로써, 교육, 연구 및 사회 봉사의 기능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주립 대학의 토대가 확고히 마련되었다. 그 이전에도 공유지 조례(1785) - 각 타운쉽안에 제16호의 지구는 그 타운쉽에 설립될 공립학교의 유지를 위해 유보된다. - 를 통한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으로 몇몇 주립대학들이 세워진 바 있으나, 본격화된 것은 <모릴법>이후의 일이다.

3) M. Trow에 의하면, 고등교육은 엘리트 단계에서 대중화단계, 보편화단계로 옮겨간다. 해당 연령 인구에서 차지하는 대학 재학생률이 15% 미만일 때를 엘리트 단계로, 15%에서 50%까지를 대중화 단계로, 50% 이상을 보편화단계로 구분한다. 우리나라는 1980년 이후 대중화단계에 돌입했다. 1980년에는 16.6%, 1985년은 37.1%에 이른다(김종철, 1989 : 159~160; 220).

4) Whitehead, "이론과 응용이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을 것 같으면, 양자가 서로 돕는 것이 된다. 어떻게 지성도 진공 속에서는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Perkins, 1970 : 21에서 재인용).

형태이다. 예컨대, 우리 현실과는 무관한 내용을 연구하고 가르칠 때, 연구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못하고 학생들의 교육과 외부 집단에 대한 연수에 쫓길 때, 가르치는 내용이 전공과 다르나 연구와 외부에 나가 기여하는 분야는 전공과 관련될 때 등이다. 그는 세 기능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균형 관계형>과, 나아가 서로 구별할 없을 만큼 통합을 이루어 대학생이나 대학생 아닌 사람의 구별없이 원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가르칠 수 있고 그런 교육이 연구의 내용이 될 수 있는 <종합기능형>을 바람직한 형태로 보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 사회교육 참여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에 봉사함은 물론이고, 거기서 얻은 산 지식을 통해 대학내의 교수와 연구기능을 충실히 하고 활력을 불어 넣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대학에서 교육학을 강의하는 교수가 학교를 방문하거나 다른 연구기회를 통해 학생과 교사 그리고 교육행정가 등과 접촉의 기회를 자주 가짐으로써 학교 현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대화를 나누는 일은 대학에서의 강의를 더욱 생생하게 해 주며, 교육에 관한 연구의 현실 적합성을 높여줄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예상될 때만이 대학의 사회교육 참여는 단지 '보따리 장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Perkins, 1970 : 78) 대학 본래의 기능에 비추어 그 정당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B. 사회교육의 발전

대부분의 사회교육 참여는 대학기능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사회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사회교육을 좁은 의미-사회교육법의 규제 밑에 비교적 의도적·형식적·조직적인 형태의 교육-로 파악할 때, 사회교육은 학교교육의 발생 이후 몇단계를 거쳐 발전해 왔다고 하겠다.

- i) 학교교육을 <보충·계속>하는 단계 : 자선교육
- ii) 학교교육의 <확장>의 단계 : 대학 확장교육
- iii) 학교교육으로부터의 <독립>의 단계 : 성인교육에 관한 독자적인 법규정 마련
- iv) 학교교육과의 <통합>의 단계 : 평생교육 이념의 제도화(진원중, 1974)

이에 비추어 볼 때, 대학의 사회교육 참여는, 학교교육을 <보충>하기 위해 대학인들이 하층민중 속에 뛰어들어 그들에게 자선적, 계몽적 성격의 사회교육을 실시한 데서부터 비롯되었고, 보다 조직적인 노력으로 나타난 것은 <대학 확장운동>을 통해서였다. 즉, 대학의 교수와 연구기능을 학생이 아닌 일반대중에게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일반 대중들도 대학을 통해 그들의 교육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 대학 확장은 한국인의 높은 교육열과 교육기회의

조건에 비추어 볼 때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⁵⁾ 뿐만 아니라, 대학 확장은 프로그램의 성격이나 운영 여하에 따라서는 탈학교론자들이 비판하는 학교교육의 한계성과 역기능을 극복하고, 인간의 학습권을 주도적으로 실현시켜 가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과학기술과 사회변화에 따른 재교육의 기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한준상, 1988).

Ⅲ. 대학의 사회교육 참여의 역사

앞에서는 대학의 사회교육 참여의 의의를 알아보았는데, 여기서는 실제로 대학이 어떻게 사회교육에 참여해 왔는가를 좁은 의미의 사회교육에 한정하여 영국과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A. 영국의 사례

영국에서 대학의 사회교육 참여는 영국의 산업화 과정과 관련하여 두 가지 형태로 발전해 왔다. 하나는 대학인이 성인교육 기관에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였고 다른 하나는 대학이 <대학 확장>의 형태로서 성인 대중들을 위한 조직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 경우였다.

대학인이 개별적으로 참여한 경우는 직공학원(Mechanics Institutes)의 설립에서 엿볼 수 있다. Anderson 대학의 Birbeck 교수가 Birmingham의 주일학교(Sunday school)교사들이 마련한 <Sunday society>에서 노동자들이 열심히 학습하는 것에 감탄하여 1799년 자연과학에 관한 일련의 강의를 한 것이 계기가 되어, 1823년 <글래스 고우 직공 학원>이 결성된다. 교육내용은 주로 화학, 물리학, 기계학 및 富의 창조와 분배에 관한 과학이었다. Birbeck 교수는 이후에도 계속 후원하여, 1851년에는 전국에 698개의 직공학원이 세워진다. 그러나, 직공학원에서는 노동자들의 정치적, 경제적 지위 문제에 무관심함으로써 19세기 중엽을 고비로 쇠퇴하고, 그곳을 떠난 노동자들은 보다 진보적인 성격의 '상호 향상사회(Mutual Improvement Societies)'라는

5) 중학교 졸업자의 9할 이상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나, 상당수는 대학에 가지 못한다.

	12년전 취학적령 아동수	대 학 진 학 자 수	미 진 학 자 수	미 진 학 륜
1988 년	12,843	4,099	8,774	68.1 %
1987 년	12,057	4,697	7,360	61.0 %
1986 년	12,198	4,699	7,494	61.5 %
1985 년	11,889	4,339	7,550	63.5 %
1984 년	11,461	4,130	7,331	63.9 %

<자료> 제주도통계연보

$$\text{미진학률} = \frac{\text{미진학자수}}{\text{12년전 취학적령 아동수}} \times 100$$

토론 집단이나 오웬리즘(Owenism)에 입각한 ‘협동사회’ 또는 ‘노동조합’ 등에 관심을 보인다 (Peers, 1972 : 14~30).

19세기 중엽 이후에는, 기독교 사회주의 이념으로 충만된 교수들이 <노동자 대학>(Working Men's College)에 참여한다(ex. 1854년 런던 노동자 대학의 설립). 여기서는 주로 사회적, 정치적인 것보다는 노동자들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요구되는 인문교과 중심의 일반 교양교육을 다루었다. 또한 Oxford의 Barnett교수가 중심이 되어 <Toynbee Hall>이 1883년 런던 동부에 건설된다. 이곳은 교육센터로서 설립된 것은 아니고, 부자와 빈자, 교육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 간의 사회평화를 이루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 대학인이 참여한 런던 노동자대학이나 트인비홀에서의 성인교육은, 교사들이 가르치는 사람에게서도 배우며, 민주적 형태의 정부를 소개했다는 점에서 진보적 성격은 지니나, 엘리트 자신들보다 못한 사람들에 무엇인가를 위로부 터 주는 방식을 취했다는 점에서는 보수적인 측면을 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두 기관은 장차 성인교육의 성패가 걸린 대학과 자발적 단체간의 제휴결성에 도움이 되었다(Peers, 1972 : 43~47).

한편, 자유주의적 혹은 기독교 사회주의적 성인교육의 입장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Oxford 대학가에 있었던 Ruskin 컬리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록, 대학이 직접 주관한 것은 아니었으나, 재학생과 졸업생, 그리고 노동조합 대표들의 지지를 얻어 1909년 중앙 노동컬리지를 창설하고 1921년에는 노동 컬리지 전국협회의의 구성으로까지 발전하여, 영국 성인교육의 또다른 전통을 형성한다. 여기서는 Marxism에 의거해 사회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본주의 경제로 귀속시키고, 이를 근절하는 경제변혁을 강조했다(長尾十三二外, 1985 : 143; Peers, 1972 : 133~6).

다른 한편, 대학의 조직적인 사회교육 참여는 <대학확장>의 형태로 나타난다. 대학 확장은 대학의 교수(teaching)를 많은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등록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도 대학문을 개방하고, 대학내 많은 단과대학(College)을 증설하는 것이다. 이것은 1830년대 이래 Chartist 운동을 통해 권리의식이 성장한 노동자 계급의 높은 지식욕구와 1870년대 초의 경제적 번영의 배경속에 Cambridge와 Oxford 대학인들의 노력이 계기가 되어 발전한 것이다. Cambridge의 Stuart 교수가 여성의 교육 향상을 위해 Manchester, Liverpool, Sheffield, Leeds 등에서 순회 강연을 했고, 또한 대학 당국에 정기적 강연의 코스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도록 수강생들을 설득함으로써 1873년 Cambridge 대학에 교외 강연체제(extramural lecture)가 마련되었다(Peers, 1972 : 50~61). 이후 여러 대학들로 퍼져 나갔고 1919년 재건부(Ministry of Reconstuction)에서는 대학의 예산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 제의되었고, 1947년에는 성인교육에 관한 대학 협의회가 결성되기에 이르렀다(성낙돈, 1988 : 87).

1970년대에 들어서는 종전의 교외교육을 전담하는 기구를 “성인 교육학부”(Department of

Adult Education) 또는 “외부 교육학부”(Department of External Education)로 승격시켜, 전통있는 다른 학부와 그 지위를 대등하게 하고 성인 교육활동 및 이에 대한 교수와 연구를 대학의 본질적 과제로 삼게 되었다.

예컨대, 1970년 리버풀대학에서는 “성인교육 및 학외 교육학부”의 사업으로 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교양강좌, ② 사회사업가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 ③ 성인교육 전문요원의 양성 및 재교육, ④ 신체장애자 지도자를 위한 자격 및 학위과정을 두고 있다(이규환, 1988 : 55). 현재에는 영국 England와 Wales의 29개 정규대학에 교외 교육부가 설치되어 있다(김종서외, 1987 : 272).

B. 한국의 사례

우리나라에서 대학이 개별적으로 사회교육에 참여한 것은, 대체로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전개한 야학, 농촌계몽운동, 교수들이 참여하는 대학의 여러 형태와 성격의 사회교육 프로그램 등에서 그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의 구체적인 양상은 우리나라 사회의 성격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음은 물론이다(이동한, 1984).

또한, 성낙돈(1988)에 따르면, 대학 주관하의 사회교육은 몇 가지 양상으로 발전해 왔다. 첫째, 교사, 농민, 경영자 등에 대한 재교육, 보수교육과 같은 확장유형으로서, 50~60년대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둘째, 대학사회교육의 기초를 닦은 비교적 체계적인 형태의 성인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으로서, 70년대에 들어서 20여개의 대학이 참여한다(아래 표를 참조할 것 - 황종진, 1979 : 59~62).

셋째, '80년대 들어 대학에 평생교육원, 사회교육원 등의 성인교육 전담부가 설치되어 대학 성인교육의 전문화, 체계화가 이루어졌다.⁶⁾ 연간 예산은 억대를 넘는 규모로까지 성장했다. 이러한 확대현상은 한국 국민중 많은 사람들이 - 특히, 고졸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 -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대학 수준의 강좌'를 수강하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⁷⁾

6) 110여개의 4년제 대학중 성인교육 담당부서가 설치된 곳은 사립 10여개 대학에 불과하다. 이화여대 평생교육원('84. 3. 개설), 덕성여대 평생교육원('84. 9.), 숙명여대 평생교육원('84. 4. 개설의 박물관 대학을 '87. 3. 평생교육원으로 개칭), 명지대 사회교육원('87. 3.), 한양대 평생교육원('87. 3.), 계명대 사회교육원('71년 주부 시민대학에서 출발하여 '84. 9. 사회교육원으로 승격), 아주대학교 산업교육원('87. 8.), 인하대학교 인하평생대학('89. 9. 예정).

7) 1982년 9월 성인 1,067명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연장교육(가칭) 프로그램의 모형 설정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인에서 대부분(응답자의 97%)은 평생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그 중 1/3(29.5%)은 대학에서 교육을 받기를 바랐다(김동철, 1985 : 36).

또한 1985년 현재 덕성여대에서 실시하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참가자의 배경을 보더라도 고졸자가 7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의 73.7%가 “대학수준의 강좌”를 계속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백중억, 1986 : 137:144).

'79년 현재 대학별 사회교육활동 현황

* 이후 변동사항 있음

대 학 명	프 로 그 램 형 태	교 육 내 용	대 상 및 방 법
강릉초급대학	노인대학 강좌 시민대학 강좌	교양, 보건, 취미 안보, 새마을교육	60세 이상 노인 : 2개월 주부 및 새마을지도자
강원대학	농업기술지원사업	농업기술교육	시범 농촌지역민 : 5개년
경희대학교	교양강좌반(주부교실) 지역개발을 위한 교육반 연수교육반	일반교양, 가정, 건강교육 지역사회교육 한국경제, 유신과, 새마을 운동	동대문구 주민 직장, 일반 단체에서 위락 한 사람
계명대학교 (지역사회교육연 구소) (산업경영연구소)	신부대학 강좌 주부대학 강좌 지도력 개발 프로그램 시민클럽 지도자 협의회 무역관리연수회	일반교양, 건강관리 가정, 가족관계 인간관계, 토의방법 시민의식 개발 무역, 경영기술, 생산관리	미혼여성 : 5주간 중졸이상 주부 : 5주간 직장, 사회전체지도자 시내 국민교 자모 : 5일간 기업체 의뢰에 의한 무역 담당직원 : 3개월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노동대학 강좌	인간관계, 노동운동	노조 간부
공주교육대학	경로대학 강좌 시민대학 강좌 부녀대학 강좌 새농민대학 강좌	일반교양교육, 건강교육 시민교육, 지역사회 교육 정서 및 여가선용 교육	60세 이상 노인 : 8주간 성인남녀 : 4주간 부녀자 : 6주간 본대 자매부락민 : 20시간
동아대학교 (관광요원훈련원) (경영문제연구소) (교무처)	관광요원 기초교육 경영문제 세미나 하기 교양강좌	외국어, 관광조사원 교육, 사회교육 현대사회와 정보산업 일반 교양	관광요원 : 240시간 기업체, 경영관리자 부산시민 : 4일간
마산초급대학	주부 시민 대학강좌	교양, 취미, 기술	고졸 정도의 주부 : 40시간
서울대학교 농과 대학	농촌개발실습	농민교육, 기술수용, 농업 생산	경기도 용인군 남사면 이 곡리 : 3개월
승전대학교 (새마을연구소)	어머니 대학강좌 단기 영농기술학교 교장단 세미나 농촌교역자 세미나	자녀교육, 식생활 개선, 인문교양 영농기술 생활지도 농촌개발, 새마을운동	대전시내 주부 : 4시간 지역 농촌청소년 : 년 2회 국민학교 교장 : 년 1회 농촌 교회교역자 : 년 1회
안동교육대학	농민교육 주부 시민 대학강좌 경로대학 강좌	정신개발, 환경개선, 소득 증대 모자보건, 식생활, 건강 관리 새마을운동, 건전한 오락	농민 주부 60세 이상 노인

대 학 명	프 로 그 램 형 태	교 육 내 용	대 상 및 방 법
연세대학교 (어린이 생활지도 연구소)	어린이 및 부모대상 강좌	아동교육	어린이, 부모: 매월 1회
예산농업전문학교 (지역사회개발연구소)	농민학교	영농지식의 전파, 부락 연구 개발	지역농민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생활과학연구원) (경영연구소)	생활과학교실 여성 경영실무 강좌	식생활 관리, 가족계획 여성과 경영, 기업진단	주부: 5일간 여성경영자: 18일간
인천교육대학	신부시민 대학강좌 주부시민 대학강좌	시민교육, 인문교양 교육 기술훈련	미혼여성: 12시간 주부: 12시간
인하대학교	지역사회 여성강좌	지역사회봉사, 인력개발	중졸 정도의 주부, 미혼 여성: 1개월
진주교육대학	어머니 대학강좌	가정일반, 아동교육, 상식	국민학교 어머니: 2개월
청주대학 (한국지역사회문제연구소)	중결 관리자 단기 대학 강좌 주부시민 대학강좌	기술, 인문, 교양 시민교육, 인문사회	중결관리자: 4주간 지역별 주부
충북대학교	동계농민교육 주부대학 시민강좌	유희노동력 활력방안 위생교육, 체력단련, 사회 교양	농민: 1개월 가정주부: 2개월
한국사회사업대학	경로대학 및 대학원 강좌	이론, 견학, 오락, 체육	60세 이상의 노인: 1년간

넷째, 최근 신문보도(중앙, '89.6.27)에 따르면, 문교부는 조만간 국립대학에도 <통신교육학부> 또는 <계속 교육학부>를 실시하여 독학에 의한 학위 인정 제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대학수준의 학교외 교육으로 인정받은 기관에서의 교육과정 이수를 대학 학점과 연계시키고, 각종 국가 기술자격 소지자에게도 학점을 인정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하고, 일반대학의 운영을 개방화, 다양화, 유연화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되 석·박사학위도 수여하며, 전문대학 졸업자에게는 준학사 학위를 수여하고 일정한 시험을 거쳐 상위 학위를 받게 한다. 또한, 방송통신대학도 출석 수업 없이 원격 교육방식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이수하여 학위를 인정받게 한다. 대학은 개방하되, 학위까지 인정해 주는 대폭적인 개혁안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제주에서의 대학의 사회교육 참여는 아직 미흡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대체로, 야간학부의 개설이나 방송통신대학을 통해 학점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에 국한하여 주간 정규학생들과 동일한 경제적 부담을 부여하면서(방송통신대학의 경우는 예외임)대학을 개방하고 있는 실정

이다.⁸⁾ 매년 평균 800여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야간 또는 방송통신교육의 형식을 통해 대학교육을 받는 셈이다. 그러나 매해 쏟아지는 5,000여명의(인문계 경우만 해도 최근 2,000명을 넘어선 상황임)대학 미진학자 수에 비하면 극히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제주전문대학에서는 정부의 지원 속에 매년 중졸의 미진학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전자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광종사자를 대상으로 자격연수, 보수교육 및 재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최근 제주전문대학에서는 사회교육연구원을 두어 비정규 성인 교육과정(관광, 외국어, 조리, 컴퓨터 등)을 계획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주도내 대학들(국립대학 2, 사립 전문대 2)의 사회교육에 대한 관심도는 그리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IV. 제주 사회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의 과제

이제까지의 논의를 정리한다면, 제주지역은 전환기적 한국사회의 현실 속에서 특히 정치·경제 및 사회·문화적으로 주변 사회화해 가고 있으나, 대학의 사회교육 참여의 측면에서 볼 때, 이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할 수 있다. 대학 교육기회의 개방면에서 소극적이고, 교육방향 역시 학위 인정 또는 기능인 양성에 머물 가능성이 높아 현실 적응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학이 제주 사회문제에 사회교육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몇가지 과제가 요청된다.

8) 제주대학교는 매년 4개 학과(행정학과, 법학과, 회계학과, 경영학과)에서 20명씩 총 80명을 선발 교육, 제주교육대학은 초급대학 졸업자에게 편입학 기회를 부과하는 실정으로 현재 3학년 21명, 4학년 49명 총 70명이 재학중임. 제주전문대학 역시 매해 전자계산과 40명, 관광과 80명, 경영과 80명의 야간부 학생의 등록을 받고 있다.

'89년 3월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 13개 학과에 등록한 제주지역 총 학생수는 2,380명에 달한다 (1학년 670명, 2학년 436명, 3학년 548명, 4학년 291명, 5학년 435명).

9) 연도별 제주도 고등학교 졸업자, 대학 진학자, 미진학자, 취업자 수(인문/실업)

연도	구분	고등학교 졸업자	대학 진학자	미진학자	취업자
'88		9,892(5,593/4,299)	4,099(3,286/813)	5,793(2,307/3,486)	1,712(188/1,524)
'87		9,728(5,018/4,710)	4,697(3,564/1,133)	5,031(1,454/3,577)	1,567(103/1,464)
'86		9,177(4,657/4,520)	4,699(3,255/1,444)	4,478(1,402/3,076)	1,450(95/1,355)
'85		9,206(4,486/4,720)	4,399(3,130/1,209)	4,867(1,356/3,511)	1,250(83/1,167)

<자료> 문교 통계연보

제주교육 통계연보

A. 대학인의 개별적인 사회교육 참여

현대 사회에서 대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수·연구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회봉사 기능과의 조화가 요청된다. 더구나, 그 사회가 대학의 도덕적 탁월성과 전문적 지식을 요구할 때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전통적인 대학관의 변화가 대학인(대학 행정가를 포함한)은 물론 지역주민 전체에서 일어나야 하겠다. 대학은 가르치고, 연구하고, 봉사하는 기관이라는 데에 합의가 필요하다.

둘째, 외부의 사회교육 프로그램 또는 여러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인은 그 활동이 지역주민에 대해 갖고 있는 교육적 의미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환기적 사회에서 교육은 삶의 과정 자체로서 인간의 물리적 생존조건외의 향상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건강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시민적 자질이나 도덕적, 정신적 성숙을 위한 것(이영덕, 1896:107)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학인의 사회교육 참여는 그 대상이 도시 중산층과 같은 특정 집단에 한정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사회교육 참여 역사에서도 보았듯이, 대학은 대다수 민중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인간적 삶을 창조해 가도록 도와 사회전체의 균형적 발전을 이끄는 데서 그 의미를 찾기 때문이다(성낙돈, 1988:107).

넷째, 사회교육에서의 몇 차례 강의 경험을 통해 느낀 것이나, 사회교육 방법에 대한 개선이 요망된다. 대학인의 강의 위주의 일방적인 지식 전달의 사회교육 형태에서 벗어나, 성인 학습자와의 수평적 관계에서 대화와 토론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학문적 지식이 현실세계의 도전 속에서 검토되는 상호 학습방법의 도입이 필요하다(한국교육학회 사회교육연구회, 1988).

B. 대학 주관하의 체계적인 사회교육 실시

아직까지, 성인 대중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대학 사회교육이 실시되고 있지 않은 제주 현실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대학내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설과 이를 전담할 부서의 설치이다. 일부 사립대학에서는 평생교육원, 사회교육원 등의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국공립대학에는 전무한 상태이다. 아직까지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은, 문교부의 계획안에 따르면 국립대학 학위 인정제도 시행을 위한 <통신 교육학부> 또는 <계속 교육학부>를 설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립대학내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고 단지 행정적인 부서를 두어, 학위 관리만을 한다면 별 의미가 없다. 오히려, 사회교육발전과는 반대 방향을 나갈 가능성이 있다. 대학 미진학자에게 그 대학의 학위를 수여할 때, 대학 입학 경쟁이 다소 완화 또는 유예될 가능성은 있으나, 부정적인 면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직업전선에서 자신의 삶을 충실히 영위하는 사람들을 학력 경쟁 속으로 끌어들이는 셈이고, 자발적으로 사회교육기관을 찾아 인간적 성숙의 기회를 가지려는 사람들을 오히려 학력 사다리 안에 위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하여, 인간의 삶을 학력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극단적인

학력경쟁이라는 학교 체제의 모순을 사회교육제도를 통해 치료코자 하는 발상은 국민들의 교육열을 이용하여 자칫, 사회교육 자체의 독자성과 본질마저 바꿔놓을 위험이 있겠다(줄고, 1988 참조). 따라서, 국립대학 안에 사회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할 경우 학위 인정제도의 유인체제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나, 학위 외의 사회교육 프로그램 실시와 병행할 필요가 있다. 학위 목적만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과정에서 야기되는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켜 자신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려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의 세금으로 세워진 국립대학에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공공성을 높이고,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¹⁰⁾ 또한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¹¹⁾ 미진학 청소년과 여성, 노인 등의 교육을 위해 대학을 개방하고 잘못 배운 것, 덜 배운 것, 더 배우고 싶은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그러할 때, 교육은 교환 가치로만 평가되는 기능적 합리주의의 사고를 불식하고, 교육은 수단이 아니라 인간 생존의 기본권으로 인식될 것이다(한준상, 1988: 36).

그리고, 대학내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개설을 전제로 할 때, 그 내용은 제주사회의 특성에 맞는, 전환기적 한국사회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관련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의 사회 제 영역에서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전통적인 제주의 문화가 상실되어 가는 상황에서 보다 주인된 입장에서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용적 태도가 요구된다. 다시 말해, “공동체적 의식을 갖춘 주인된 인간”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방식을 활용해서 길러져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은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개설과 이를 담당할 전담부서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성인학습과 사회교육에 대한 연구를 위해, 그리고 사회교육지도자¹²⁾ 양성 및 연수를 위한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 학과의 설치가 가장 바람직하리라 여겨진다. 이미, 대학원 수준에서는 ‘사회교육학과’가 설치되어 사회교육 종사자들의 자격기회를 마련해 주는 곳들이 있다(명지대학교 사회

10) 이미 공포된 사회교육법(1982. 12. 31) 제24조 “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은 당해 대학의 특성에 맞는 사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와 제26조 “학교에 사회교육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부설할 수 있다”를 참조할 것.

11) 현 사회교육법 15조에서는 이를 의무규정으로 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한 정정이 요구된다.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회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교육단체 또는 사회교육 설치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2) 사회교육법 제17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회교육 단체 또는 사회교육 시설에는 사회교육과정의 편성·진행과 교육효과의 분석·평가 등 사회교육활동의 기획·분석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사회교육 전문 요원(이하 “전문 요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교육대학원,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등). 제주대학교 사범대학이나 제주교육대학의 경우, 정규 초·중등 교사만을 양성하고 있는 실정인데, 교사 수급의 불균형 관계로 많은 진통을 겪고 있고 또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교육 단체나 시설에 사회교육 전문요원의 배치가 실질적으로 의무화되어, 사회교육 전문요원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임을 가정한다면, 사회교육법에 규정된 사회교육 전문요원의 양성을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에서 추진하는 것은 사회교육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대학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

V. 맺 음 말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전환기적 특성을 보이는 한국사회 속에서 그리고 한국내에서 주변 사회화하고 있는 제주 실정을 고려할 때 “공동체 의식을 갖춘 인간 형성”이 요구됨을 전제로 하여, 제주도내 대학의 사회교육 참여의 방안을 모색하였다.

오늘날의 학교교육이 대학 입학에 위한 준비기관, 생존경쟁의 장으로 그 성격이 전락하고, 대학에 가보지 못했거나 대학입시에 실패한 사람은 낙오자로 간주되는 학력사회 속에서, 우리들은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다. 또한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위에서 그러한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들은 아무런 의식없이 또는 극단주의적 사고방식에 젖어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 대학은 도덕적 탁월성과 지적 전문성에 근거하여, 사회교육적 노력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학력주의 사회의 논리에 휘말려 사회교육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인간의 기본권으로서의 학습권을 충족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지역내 국립대학에도 지역 실정에 적합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전담할 부서의 설치가 요청된다.

국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제도적, 행정적 지원은 물론 재정적 도움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학인 스스로가 대학에 관한 전통적 관점을 벗어나고, 사회교육적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합의와 헌신적 노력이 요망된다.

참 고 문 헌

- 권영환(1987), “대학 성인교육에 대한 교수태도 연구”, 한국사회교육협회, 사회교육연구 제12권.
 김도수(1988), “고등교육과 사회교육의 연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생교육과 대학교육.
 김동철(1989), “이화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정지웅(편), 대학사회교육, 서울: 한국교육학회 사회교육연구회.

- 김민호(1988), 산업체 부설학교 학생들의 직업기대 수준에 관한 연구, 제주교육대학논문집 제18집.
- 김승한(1983), 평생교육 입문, 서울: 정민사.
- 김신일(1983), “평생교육의 사회적 배경”,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한국평생교육기구(공편), 평생교육의 기초와 체제, 서울: 법문사.
- 김신일(1988), “교육의 민주화, 사회의 민주화”, 강원대학교 교사교육원 주최 교육민주화 대토론회 발표문.
- 김안중(1988), “평생교육과 대학의 이념”, 토론 내용, 한국대학 교육협의회, 평생교육과 대학교육.
- 김중서 외(1987), 평생교육원론, 서울: 교육과학사.
- 김중철(1989), 한국교육정책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 백종억(1986), “대학 부설 여성평생교육원 참여자의 배경 특성 및 요구 분석”, 한국사회교육협회, 사회교육연구 제11권.
- 성낙돈(1988), “성인교육 발전을 위한 한국대학의 과제와 역할”, 서울대학교 교육학 연구회, 교육이론 제3권 제1호.
- 이규환(1988), “선진국에서의 대학 확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생교육과 대학교육.
- 이돈희(1988), “평생교육과 대학의 이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생교육과 대학교육.
- 이동한(1984), “노동교육의 측면에서 바라본 야학 소사”, 노동: 일터의 소리 I, 서울: 지양.
- 이상주(1980), “사회교육제도 발전의 기본 방향”, 한국교육개발원(편), 교육제도발전의 방향 탐색, 서울: 교육과학사.
- 이상철(1987), “제주사회 변동론 서설: 개발정책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과 정책 연구, 제8권 3호.
- 이영덕(1986), “한국사회교육의 전망”, 한국사회교육협회, 사회교육연구 제11권.
- 정지웅(1987), “대학의 사회봉사 기능”, 대학교육, 통권 28호.
- 정호경(1986), 더불어 살기 운동, 서울: 한길사.
- 진원중(1974), “사회교육의 개념”, 진원중외, 사회교육의 제문제, 서울: 능력개발.
- 진원중(1977), “사회교육의 연구영역”, 진원중(편), 사회교육의 동향과 좌표, 서울: 배영사.
- 한국교육학회 사회교육연구회(편) (1988), 사회교육방법론, 서울: 형설출판사.
- 한기연(1978), “대학 이념의 변화와 역사”, 한기연(역) (1978), 대학의 미래, 서울: 중앙일보.
- 한준상(1988), 사회교육과 사회문제, 서울: 청아출판사.
- 황종건(1979), “대학에서의 사회교육”, 정태범외, 한국사회 교육의 발전 과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황종건(1980), 사회교육진흥법 시안을 위한 과제-사회교육제도 비교 연구, 대구: 계명대학교

지역사회교육연구소.

Coles, E. K. T. (1977), *Adult Educ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Oxford : Pergamon Press.

Peers, R. (1972), *Adult Education - A comparative study*, Lonon : RKP.

Perkins, J. A. (1970), *The University in Transition*, 한기연(역) (1978), 대학의 미래, 서울 : 중앙일보.

長尾十三二外(1985), 近代教育思想史, 송일지(옮김), 신교육운동사, 서울 : 한마당.

사회교육법(1982. 12. 31)

인하대학교(1989), 교양교육원 안내 팸플렛.

중앙일보, '89. 6. 27.